



미 증시, 소비 불안 완화 등으로 1%대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2 일(화) 미국 증시는 OECD 의 성장 둔화 경고에도, 베스트바이 등 유통체인주들의 동반 강세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 완화, 연준 위원들의 속도조절 발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18%, S&P500 +1.36%, 나스닥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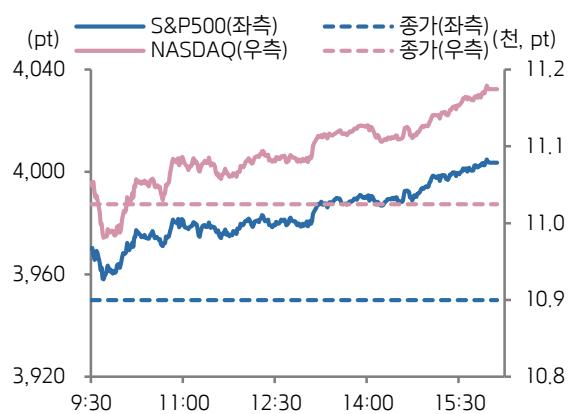
전일 긴축 속도 조절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합리적으로 잘 고정돼 있다", "현재 임금은 노동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완화적 스탠스를 취함. 한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고용시장 과열로 인해 고착화된다면 연준이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질적인 고용 둔화 없이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중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수는 전국적으로 2 만 7 천여명으로 6 일 연속 2 만 명대를 유지. 수도 베이징에서는 1 천 426 명에 달하면서 공공장소 출입을 위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기준이 72 시간에서 48 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방역 정책이 강화.

전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3.2%), 소재(+2.2%), IT(+1.9%)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커고, 부동산(+0.5%), 필수소비재(+0.7%), 산업재(+0.8%)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애플(1.47%), 알파벳(1.52%), 아마존(0.8%), 메타(1.44%) 등 주요 시총상위주들은 반등에 성공, 그동안 중국 코로나 19 확산 및 수요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1.22%) 역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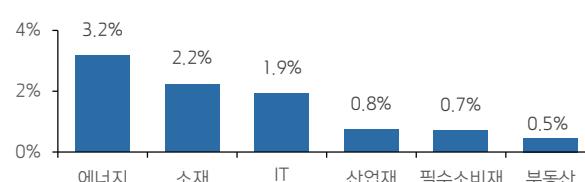
장전에 실적을 발표한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12.78%)는 예상치를 상회한 3 분기 실적 및 연간전망을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급등, 의류 기업 애버크롬비앤피지(+21.42%) 역시 실적 호조 및 예상 손실폭을 하향 조정하며 급등하는 등 소비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데에 기여. 한편 줌비디오(-3.87%)는 3 분기에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둔화됐다고 발표하며 장중 5% 급락을 보이는 등 기업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 보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003.58	+1.36%	USD/KRW	1,356.89	+0.13%
NASDAQ	11,174.41	+1.36%	달러 지수	107.17	-0.61%
다우	34,098.10	+1.18%	EUR/USD	1.03	-0.01%
VIX	21.29	-4.79%	USD/CNH	7.14	+0%
러셀 2000	1,860.44	+1.16%	USD/JPY	141.24	+0.01%
필라. 반도체	2,756.82	+3.0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334.28	+0.27%	국고채 3년	3.857	+1.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780	+1.5bp
Eurostoxx50	3,929.90	+0.53%	미국 국채 2년	4.515	-3.8bp
MSCI 전세계 지수	611.38	-0.76%	미국 국채 10년	3.756	-7.1bp
MSCI DM 지수	2,640.44	-0.6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31.05	-1.27%	WTI	81.06	+1.27%
MSCI 한국 ETF	56.86	+0.71%	금	1755.5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7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52.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내일 새벽 공개되는 11 월 FOMC 의사록을 둘러싼 경계심리 유입 여부
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반등(+3.0%)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3.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기대감 부각에 따른 국내 IT 주들의 투심 개선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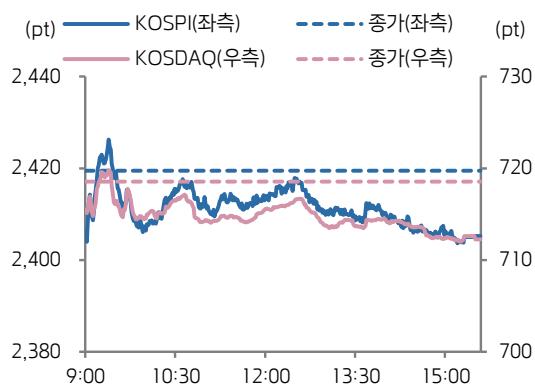
지난주 이후 최근까지의 증시 분위기를 보면, 기술적인 하락과 상승이 수시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개별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이는 등 방향성 베팅이 모호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이는 호재, 악재 구분 문제를 떠나서 연준, 인플레이션, 실적, 지정학 등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재료들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

일단 전일 추가된 새로운 재료는 지난 9 월에 이어 발표된 OECD 의 경제 전망으로, G20 의 '22 년 성장률(9 월 3.0%→11 월 3.1%), '23 년 성장률 (2.0%→2.0%) 전망치는 예상보다는 견조한 상황. 하지만 G20 의 '22 년 인플레이션(8.2%→8.1%), '23 년 인플레이션(6.6%→6.0%) 전망치는 소폭 하향조정 됐음에도, 여전히 고물가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전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저성장+고물가”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 존재. 이에 더해 OECD 가 “급격한 통화긴축”을 리스크로 지적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

다만, 12 월 중 예정된 11 월 미 CPI 와 12 월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인플레이션의 추세, 최종 정책금리 레벨을 가늠할 수 있음, 해당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 OECD, IMF 등 주요 기관들의 성장을 전망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CPI 와 FOMC 까지는 아직까지 약 3 주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벌써부터 해당 이벤트를 가격에 반영하려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분간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시즌을 포함한 단기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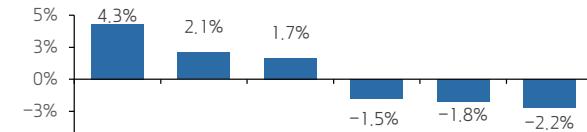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코로나 재확산, 테슬라발 악재 속 외국인 순매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코스피-0.6%, 코스닥 -0.9%). 금일에는 11월 FOMC 의사로 경계심리에도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 속 미국 델(+6.8%) 발 호재에 따른 필라델피아 반도지수(+3.0%) 반등 효과 등에 힘입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 미국 증시에서 베스트바이(+12.8%), 아베크롬비(+21.4%) 등 주요 유통체인들이 양호한 가이던스 제시한 영향에 힘입어 동반 급등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이는 전미소매협회, 딜로이트 등 주요 기관들이 연말 소비시즌이 지난해에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긴 했지만, 이미 이미 시장에서도 기대치를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유통체인들의 긍정적인 코멘트는 금번 블랙프라이데이가 우려보다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 따라서 국내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소비시즌에 영향을 받는 가전,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관련주들에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생성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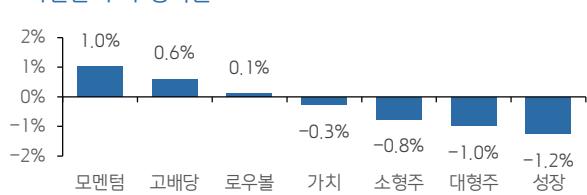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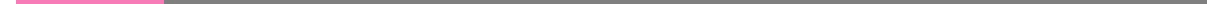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